

## 蟹攝 1·2等 글자의 현대 한국 漢字音 형성 배경 탐색\*

李 春 永\*\*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2. 중국 多音字 어음  |
| II. 현대 한국 漢字音 배경 분석 | 3. 한국 고유 어음변천 |
| 1. 중국 漢語 어음변천       | III. 결론       |

### I. 들어가는 말

한국 언어는 순수 한국말과 漢字語로 구성된다. 한자는 한국 고유의 어휘 속에 융화되어 한국 정서에 적합한 용법과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 한국어 속에서도 대략 60%정도<sup>1)</sup>의 한자어가 한국인의 언어표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漢字와 함께 유입된 漢字音은 한국인의 발음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정착되었다. 한국 한자음의 모태음에 대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하였고, 현재 학계에는 ‘上古音說’과 ‘切韻音說’, ‘唐代 長安音說’, ‘宋代 開封音說’ 등의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정론은 없다.<sup>2)</sup> 한국 한자는 한자 유입시기의 모태음을 기본으로 하여 시대적 언어 환경과

\* 이 연구는 201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부교수

1) 何九盈 등,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大學出版社, 1995년, 375쪽.

2) 이토 지유키 저,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1년 4월, 407쪽.

필요에 따른 수많은 선택 과정을 겪으며 현대 한국 한자음을 형성하였다. 한국인의 한자 어음 선택과정에는 일정 규칙과 근거가 존재한다.

중국과 언어체계가 다른 한국에서 현대 한자음은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목적이다. 한자음 형성 기준은 形·音·義의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음성학적인 각도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류를 배경으로 발생한 중국 한어 어음변천의 영향 외에도 한국 고유언어체계의 영향 및 多音字의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인의 한자음 선택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의 형성 배경은 한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한어의 어음변천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 방언 어음현상을 이해하고 古音을 擬音하는데 있어서도 참고할 중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 한자음 형성 배경을 통해 한국어 변천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한자음 정리의 근거를 확립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經史正音切韻指南》 蟹攝 1等·2等 글자의 현대 한국 한자음 모음반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어에서 주로 ‘-ai’·‘-uai’음 혹은 ‘-ei’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蟹攝 1等·2等 글자는 비교적 규칙적인 어음변천과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한자음 형성 어원과 선택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의 형성 배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좋은 연구대상이다. 본고에서는 蟹攝 1等·2等 글자를 《廣韻》과 《集韻》으로 분석하여 중국에서 존재했던 역대 어음을 파악하여 중국 한어의 어음변천내용과 비교하고, 예외적인 현상에서 다양한 어음형성 원인을 고찰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의 선택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현대 한국 漢字音 배경 분석

### 1. 중국 漢語 어음변천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漢字文化圈이란 배경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면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어왔다. 한중교류를 배경으로 중국의 漢字音은 한국인들이 한자음을 결정하고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 《東國正韻》 보급 이전에 과거 시험 한자운의 기준이 되었던 《禮部韻略》의 平水韻, 조선시대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古今韻會舉要》를 底本으로 편찬한 《東國正韻》을 통해 중국 한어의 한국 한자음에 대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蟹攝 1等·2等에는 《廣韻》 ‘哈’<sup>3)</sup>·‘佳’·‘皆’운의 글자들과 去聲 ‘夬’와 去聲 ‘泰’운 글자가 포함된다. 蟹攝 1等·2等 글자의 한어어음변천 내용을 통해 현대 한국 한자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글자는 현대 중국 보통화 형성까지 合流와 分化과정을 거쳤으며, 그 어음변천과 현대 한국 한자음 모음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廣韻》		上古 開合 四等 <sup>4)</sup>	韻母의 변천과정 <sup>5)</sup>									현대 한국 한자음 모음	
韻	41聲類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哈		開口 一等	əi	əi	əi	ei	ai	ai	ai	ai	ai	ai	hi
			ə:t	ə:t	ə:t								

- 3)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平聲이 上聲·去聲을 포함한다.
- 4)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5月,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에 표시한 上古音 開合四等に 근거한다.
- 5) 漢語 語音史는 王力の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5月,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을 근거로 《廣韻》 41聲類에 따라 도표로 재분석하고 조정한다. 오차가 있는 경우는 본고의 분석에 따라 조정하였으

佳	見溪匣曉 幫滂並 莊牀初 泥疏徹 明澄影	開口 二等	e	e	e	eai					ǎi	ie	H
		開口 二等	e:k	e:k	e:k	eai	ai	ai	ai	ai	ai	ai	
		合口 二等	ue	ue	ue	uai	uai	uai	uai	ua	ua	ua <sup>6)</sup>	과 내
皆	見匣曉 (平去)	開口 二等	eəi	eəi	eəi	eəi	ai	ai	ai	ai	ai	ai	H
		開口 二等	ei	ei	ei	eəi	ai	ai	ai	ai	ǎi	ǎe	
		合口 二等	oəi	oəi	oəi	oəi	uai	uai	uai	uai	uai	uai	나
泰	見溪疑 端透定 影匣來 精清從	開口 一等	a:t	ɑ:t	ɑ:t	ai	ai	ai	ai	ai	ai	ai	H
		合口 一等	ua:t	ua:t	ua:t	uai	uai	uai	uai	uai	uai	uai	H (端透定) 나
夬		開口 二等	ea:t	ea:t	ea:t	eəi	ai	ai	ai	ai	ai	ai	H
		合口 二等	oa:t	oa:t	oa:t	oəi	uai	uai	oai	uai	uai	uai	내

위의 도표를 통해 현대 한국 한자음 속에 蟹攝 1等·2等 글자가 비교적 규칙적인 독음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인 특징으로는 1·2 등의 합류와 3·4 등의 합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開合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반영음 중 중국 한어 어음변천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廣韻》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的 합류음 ‘H’

중국 한어 어음변천에서 隋唐시기에 《廣韻》 哈운 開口1等은 泰운 開

며, 표 중 三等韻頭는 ‘ǎ’로 표기한다.

6) 佳韻 合口二等 平聲과 上聲의 見母·溪母의 일부 글자는 현대 중국에서 ‘-uai’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枊崗喞 등이다.

開口1等に 합류되고, 佳·皆·夬운 開口2等 글자가 합류한다. 宋代에 이르면 哈·泰운 開口1等이 佳·皆·夬운 開口2等과 완전히 합류한다. 明清에 이르면 佳皆 두 운의 見溪匣曉 네 성모의 대부분 글자들이 따로 분화하는데, 宋代 이후에서 明清 이전까지 哈·佳·皆·泰·夬운 開口字는 모두 같은 음으로 발음되었다.

王力이 擬音한 隋唐시기에서 五代시기까지의 哈운 開口1等과 泰운 開口1等の 합류음 ‘-ai’의 ‘a’元音과 佳·皆·夬운 開口2等 글자의 합류음 ‘-ai’의 ‘a’元音은 같은 低元音이며, ‘a’는 後元音이고 ‘a’는 前元音으로 발음 위치상 前後의 차이가 나는 유사음이다. 이 글자가 宋代에 이르면 같은 음으로 발음된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는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 글자가 ‘ㄱ’모음으로 발음된다. 조선시대의 중국 북방음을 표기한 《洪武正韻譯訓》·《四聲通考》·《老乞大朴通事諺解》 등에서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 글자를 ‘ㄱ’모음으로 표기한 것<sup>7)</sup>을 근거 할 때, ‘ㄱ’모음이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 합류음의 구현임을 알 수 있다.

## 2) 《廣韻》 佳·泰 開口字의 明清 分化音 ‘ㄱ’

중국 한어에서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 글자는 宋代에 완전히 합류하지만, 明清시기에 이르면 佳운 見溪匣曉 네 성모 글자와 皆운 平聲·去聲 見匣曉 세 성모 글자는 다시 ‘-ie’운모로 분화된다. 조선시대 중국 北方音을 표기한 《四聲通考》·《老乞大朴通事諺解》·《華東正音通譯韻考》에서는 皆운 見溪匣 성모 글자와 佳운 見匣 성모 글자의 모음을 ‘ㄱ’로 표기하고 있어,<sup>8)</sup> 明清 이후 ‘-ie’음이 ‘ㄱ’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明清 이후로 분화한 佳운 見溪匣曉 네 성모 글자와 皆운 平聲·去聲 見匣曉 세 성모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기본적으로 佳·泰

7)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年, 306~311쪽 참고.

8) 같은 논문, 309, 310쪽 참고.

開口字의 반영음인 ‘내’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글자에서 ‘내’모음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佳운 匣母 글자 중 揆禊禊는 ‘혜’로 발음된다. 또한 皆운 平聲 匣母 중 鞋는 ‘혜’가 慣用音으로 발음되며<sup>9)</sup>, 上聲 見母 중 誠界械屨는 ‘계’로 발음되고 戒屈는 ‘계’가 慣用音으로 사용된다. 또한 上聲 匣母 중 齧閑도 ‘계’로 발음되고, 械도 ‘계’를 慣用音으로 사용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 나타나는 ‘내’모음은 중국의 明清 이후 현대까지 見溪匣曉에 나타났던 중국 한어 발음의 반영이다.

### 3) 《廣韻》 佳·皆·泰·夬운 合口 1·2等の 합류음 ‘내’

중국 한어에서 佳운 合口2等과 泰운 合口1等은 南北朝 시기에 먼저 합류하고, 隋唐 시기에 이르면 皆운 合口2等과 夬운 合口2等도 佳·泰 두 운 合口字와 합류한다. 元나라에 이르면 佳운 合口2等과 泰운 合口1等の 牙音을 제외한 글자가 각각 ‘-ua’와 ‘-uai’음으로 변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佳·皆·泰·夬운 合口 1·2등자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모음으로 발음된다. 佳운 合口2等과 夬운 合口2等은 ‘내’모음으로 발음되고, 皆운 合口2等과 泰운 合口1等은 기본적으로 ‘내’모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皆·泰운 合口의 일부 글자에서 ‘내’모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泰운 合口1等 見母 儉의 발음은 ‘쇄’가 慣用音이며, 皆운 去聲 合口2等 曉母 簾의 발음은 ‘쇄’가 慣用音이다. 또한 疏母 鍛殺綱의 발음은 ‘쇄’이다. 조선시대 중국 北方音을 표기한 《洪武正韻譯訓》·《四聲通考》·《老乞大朴通事諺解》·《華東正音通譯韻考》·《奎章全韻》에서 皆·夬운 合口字와 佳·泰운 合口 牙音을 주로 ‘내’모음으로 표기한 것<sup>10)</sup>을 근거할 때 ‘내’는 佳·皆·泰·夬운 合口 1·2等字의 합류음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9) 東洋學研究所 編纂, 《漢韓大辭典》(14),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년 7월, 1,400 페이지에는 독음이 ‘혜(海)’로 표기되었고, 수록 어휘의 발음은 모두 ‘혜’로 표기하였다. 慣用音은 일반 사전에 표기되고, 《漢韓大辭典》에서는 慣用音으로 어휘 전체에 사용된 음을 말한다. 이하 한국 한자음의 발음은 《漢韓大辭典》와 《漢韓大字典》(民衆書林編輯局, 民衆書林, 1966년 10월)을 참고한다.

10) 楊人從, 앞의 논문, 1982년, 307~311쪽, 315쪽 참고.

있다.

4) 《廣韻》 佳운 습口字 元代 分化音 ‘ㅈ’

중국 한어에서 佳운 습口2等은 元나라부터 ‘-ua’음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현대 보통화에서도 ‘-ua’음으로 발음된다. 조선시대 중국 北方音을 표기한 《洪武正韻譯訓》·《四聲通考》·《四聲通解》·《老乞大朴通事諺解》에서는 이 글자들을 ‘ㅈ’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다.<sup>11)</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나타나는 佳운 습口2等 글자의 표기음 중 하나인 ‘ㅈ’모음은 佳운 습口2等이 元代 이후부터 보통화에서 발음되는 ‘-ua’음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한어어음 과정에서도 예외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보통화에서 夫韻 습口2等 글자는 ‘-uai’로 발음되지만, 匣母 話는 ‘-ua’로 발음되고 있다. 話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ua’음을 반영한 ‘화’로 발음되어 ‘ㅈ’모음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5) 《廣韻》 皆·泰 두 운 습口字 반영음 ‘ㅉ’

중국 한어 어음변천과정에서 泰운 습口一等은 牙音을 제외한 글자가 元代부터 ‘-uəi’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明清시기 이후부터는 灰운 글자도 합류되어 현대 보통화에서 모두 ‘-uəi’음으로 발음된다.<sup>12)</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灰운 습口一等 글자는 ‘ㅉ’음으로 발음된다. 또한 泰운 습口一等에도 ‘ㅉ’모음 반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灰운과 泰운의 합류음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 보통화에서 ‘-uəi’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支·脂·祭운 습口の 喉音·舌音·齒音, 微운 습口の 喉音과 微母 글자, 齊운 습口の 喉音 등이 있다.<sup>13)</sup> 그러나 灰운과 泰운 습口字를 제외한 다른 글자는 모두 ‘ㄱ’, ‘ㄷ’,

11) 같은 논문, 311쪽 참고.

12) 王力, 앞의 책, 502쪽에서는 ‘回’를 灰운 습口の 대표 글자로 삼아 明清시기부터 ‘-uəi’음으로 표기하였다.

13) 王力, 《漢語史稿》 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6, 160쪽.

‘꺨’, ‘꺨’ 등의 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렇다면 灰·泰 두 운과 支·脂·祭운  
 合口의 喉音·舌音·齒音, 微운 合口의 喉音과 微母 글자, 齊운 合口의 喉  
 音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等第이다. 灰운과 泰운은 合口1等  
 글자이지만, 支·脂·祭·微·齊운은 合口3·4等 글자이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  
 서는 洪音과 細音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佳·泰·夫 세 운과 합류하는 皆운 合口字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기본  
 적으로 ‘니’모음으로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皆운 合口字의  
 특성에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皆운 合口字는 灰·泰 두 운과 비교했을  
 때 蟹攝의 洪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皆운 合口에는 현대  
 보통화에서 灰·泰 合口字의 합류 반영음 ‘-uəi’의 독음을 가진 글자가 다  
 수 포함되어 있다. 皆운 合口字의 현대 보통화 발음과 현대 한어 한자음  
 발음 상황은 다음과 같다.’

		《廣韻》皆운 合口字		《廣韻》·《集韻》		현대 보통화	현대 한국 한자음	
平聲	見	乖	皆	見	古懷切《廣韻》	kuai	괴	
	匣	懷滾	皆	匣	戶乖切《廣韻》	xuai	회	
		懷	皆	匣	戶乖切《廣韻》	xuai	xuəi	회
	賄			匣	戶賄切《集韻》			
	溪	匯	皆	溪	苦淮切《廣韻》	k'uai	회	
	曉	虺	皆灰	曉	呼懷切《廣韻》 呼恢切《廣韻》	xuəi	회	
	定	燼	皆灰	定	杜懷切《廣韻》 杜回切《廣韻》	t'uəi	퇴	
	影	歲	皆灰	影	乙乖切《廣韻》 <sup>14)</sup> 烏回切《集韻》	wuai	wuəi	외
		礨魂	皆灰	影	乙乖切《廣韻》 烏回切《集韻》	wuəi	외	
	牀	隴	皆	牀	仕懷切《廣韻》	tʂ'uai	취	

14) 宋) 陳彭年 等 重修, 林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 臺北市, 黎明文化事業  
 公司, 1999年, 95쪽의 교정에 따라 ‘乙皆切’을 ‘乙乖切’로 수정함.

去聲	見	怪	皆	見	古壞切《廣韻》	kuai	괴
	溪	蒯墳	皆	溪	苦怪切《廣韻》	k'uai	괴
		嬾噴	皆	溪	苦怪切《廣韻》	k'uəi	괴
		喟	皆至	溪	苦怪切《廣韻》 丘愧切《廣韻》	k'uai k'uəi	괴
		質質	皆至	溪群	苦怪切《廣韻》 求位切《廣韻》	k'uai k'uəi	괴
	匣	壞	皆	匣	胡怪切《廣韻》	xuai	괴
	疑	贖	皆	疑	五怪切《廣韻》	k'uəi	외
曉	窺	皆	曉	火怪切《廣韻》	xuai	혜(외)	

위 도표의 짝은 습口的 22개 글자 중 11개 현대 보통화에서 ‘-uəi’의 어음으로 발음되거나 같은 聲母의 ‘-uai’와 ‘-uəi’의 두 음을 가지고 있다. 檀碾魂嬾噴 등의 글자는 중국 보통화에서도 ‘-uəi’의 독음이 선택되었다. 짝은 습口字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泰·灰의 합류음인 ‘괴’ 모음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6) 《廣韻》 佳韻 開口二等 見母 佳街的 ‘ㄱ’

佳韻 開口二等 見母字는 중국 보통화에서 ‘-ie’음으로 발음되고 현대 한국 한자의 발음은 ‘ㄱ’모음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平聲 見母 佳街 두 글자만 현대 한국 한자에서 ‘ㄱ’음을 慣用音으로 사용한다.

佳는 《廣韻》에서 佳韻 開口二等 見母 古賤切이지만 《集韻》에는 麻운 開口二等 見母의 居牙切의 어음도 수록되어 있다. 이 글자는 중국에 두 가지 발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어에서는 佳韻 開口二等의 佳는 麻운 開口二等 見母의 변천음인 ‘-ia’로 발음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王力은 ““佳”字, 南北朝詩人就有讀入麻韻的”<sup>15)</sup>라고 주석하였다. ‘佳’의 발음은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濟南·西安·太原·武漢·成都·合肥·潮州 등지에서는 ‘-ia’로 발음되고, 雙峰 白話·南昌·梅縣·厦

15) 王力, 《漢語語音史》, 498쪽.

門·福州·建甌 등지에서는 ‘-a’음으로 발음되고, 廣州와 陽江에서는 ‘-ai’음으로 발음된다.<sup>16)</sup> 중국 방언에서도 한국어 ‘ㅏ’모음과 유사한 ‘-a’음으로 발음되는 곳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조선시대 《華東正音通譯韻考》·《華東正音通譯韻考》·《奎章全韻》에서는 佳街 두 글자의 어음을 ‘개’로 표기하였다.<sup>17)</sup> 현대 한국 한자에서는 佳를 ‘가’음으로 慣用하고 있어 한어 어음 선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동음자인 街도 역시 ‘가’를 慣用音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溫州와 雙峰에서도 街를 ‘ka’로 발음하고 있어<sup>18)</sup> 발음에서 한국과 같은 선택을 하였다.

## 2. 중국 多音字 어음

한자를 고유 언어와 병용하는 한국에서는 한 漢字의 多音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다. 상용하는 의미를 위주로 수용하였으며, 한국 환경에 필요하지 않은 의미를 자연 도태되었다. 발음면에서도 하나의 글자가 중국 고음에서 2개 이상의 발음이 존재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그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고음과 방언을 참고하여 분류한 《廣韻》과 《集韻》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을 때, 多音字는 중국에서 몇 가지 독음으로 각각 표현되던 의미가 현대 한국에서 하나의 독음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같은 의미가 몇 가지 발음으로 존재했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발음이 선택된 경우도 있다. 多音字 중 한국에서 선택한 발음이 시대적·지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廣韻》과 《集韻》에 수록되지 않는 발음은 聲子의 어음을 표시하는 形聲字의 聲符(聲母)를 근거로 존재를 추측

16)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편,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社, 2003년 6월, 10쪽.

17) 楊人從, 앞의 논문, 1982년, 310쪽 참고.

1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46쪽 참고.

할 수 있다. 聲符와 聲子是 어음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聲符는 고대에 존재했던 어음이나 유사음의 좋은 근거가 된다. 蟹攝 1等·2等 글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廣韻》 哈운 𪛗

《廣韻》 哈운 平聲 開口1等 清母인 倉才切 𪛗는 현대 한국에서 ‘시’음이 慣用音이다. 哈운 開口1等 글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히’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𪛗의 발음은 이러한 경향과 차이가 난다. 《漢韓大字典》에서는 𪛗의 倉才切 어음의 의미인 ‘굳세다, 똑똑하다, 수염 많다’의 의미에 대해서 本音을 ‘채’로 명기하면서 현대에 ‘시’로 발음됨을 명기하였다. 또한 ‘책선하다’의 의미도 ‘시’음 아래에 나열되었다.<sup>19)</sup> 《漢韓大辭典》에서도 𪛗를 ‘시’를 慣用音으로 제시하였다.<sup>20)</sup> 현대 한국에서 𪛗의 발음으로 ‘시’가 慣用音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𪛗는 《廣韻》에서 之운 開口3等 心母인 息茲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으며 ‘책선하다: 서로 선도(善道)를 권장하다(𪛗𪛗)’의 의미를 나타낸다. 之운 開口3等に 대해서 王力은 韻母 어음변천을  $iə \rightarrow i \rightarrow i^{21}$ 로 표기하였다. 현대 한국에서는 𪛗의 두 가지 어음에 담긴 의미가 합쳐져 ‘i’운모 단계인 隋唐에서 五代까지의 어음이 반영된 ‘시’로 발음되고 있다.

2) 《廣韻》 哈운 摠顯

《廣韻》 哈운 平聲 開口1等 心母인 蘇來切 摠顯는 현대 한국에서 ‘시’로 발음되며, 摠의 蘇來切 어음의 ‘움직이다(檯摠)’ 의미를 나타내고, 顯역시 蘇來切 어음의 ‘얼굴의 옆부분(顯頰)’을 나타낸다. 哈운 開口1等 글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대부분 ‘히’모음으로 발음되지만 摠顯의 발음은 이

19) 民衆書林編輯局 編, 앞의 책, 161쪽.

20) 東洋學研究所 編纂, 《漢韓大辭典》(1), 檀國大學校出版部, 1999년 3월, 1240쪽.

21) 王力, 《漢語語音史》, 497쪽.

러한 경향과 차이가 난다. 《漢韓大字典》에서는 顛의 本音を ‘새’로 명기 하면서 현대에 ‘시’로 발음됨을 명기하였다.<sup>22)</sup> 《廣韻》과 《集韻》에서 摠顛의 다른 어음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聲符 思에서 어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聲符 ‘思’는 《廣韻》에서 之운 開口3等 心母인 息茲切 어음으로 수록되고 있다. ‘思’의 韻母 어음변천은  $iə \rightarrow i \rightarrow \imath$ <sup>23)</sup>로 표기 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聲符 思는 ‘이’운모 단계인 隋唐에서 五代까지의 어음 반영음인 ‘시’의 발음도 존재하고 있어 摠顛의 ‘시’음이나 유사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 3) 《廣韻》 皆운 麤

皆운 平聲 開口2等 牀母인 土皆切 麤는 현대 한국에서 ‘제’로 발음된다. 皆운 開口2等 글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대부분 ‘이’모음으로 발음되지만, 麤는 ‘기’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廣韻》에는 麤 아래에 “또한 齊음이 있다(又音齊)”<sup>24)</sup>라고 주석하였으며, 齊운 開口4等 從母인 徂奚切 아래에 麤가 수록되어 있다. 土皆切과 徂奚切 두 독음의 의미는 모두 ‘사슴과 유사하고 뿔이 앞으로 나와 있는 짐승’이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는 麤의 又音 ‘齊’의 반영음 ‘제’가 선택되어 발음된다.

### 4) 《廣韻》 皆운 簣

皆운 去聲 合口2等 溪母인 苦怪切 簣는 현대 한국에서 ‘궤’가 慣用音로 발음된다. 簣는 ‘흙을 옮기는데 쓰는 죽룡(籠)’의 의미이다. 皆운 合口2等 글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이’모음으로 반영되지만 簣는 ‘궤’로 발음되고 있다. 《廣韻》에는 또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脂운 去聲 合口3等 群母인 求位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고, 이 글자의 현대 중국 보통화 발음은 ‘-uəi’이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脂운 去聲 合口3等 群母인 求位切의 반영

22) 民衆書林編輯局 編, 앞의 책, 2550쪽.

23) 王力, 《漢語語音史》, 497쪽.

24) 宋) 陳彭年 等著, 《廣韻》, 臺北市,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1년, 95쪽.

음 ‘제’를 선택하여 발음하고 있다.

5) 《廣韻》 皆운 憊

皆운 去聲 開口2等 並母인 蒲拜切 憊는 현대 한국에서 ‘비’로 발음되고 ‘앓다(病也)’의 의미를 나타낸다. 《集韻》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齊운 去聲 開口4等 並母인 蒲計切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齊운 去聲 蒲計切의 반영음이 선택되었다.

6) 《廣韻》 皆운 儕

皆운 平聲 開口2等 牀母인 士皆切 儕는 현대 한국에서 ‘제’가 慣用音으로 발음된다. 《廣韻》 皆운 士皆切의 儕는 ‘무리(類, 輩)’의 의미이며, 현대 한국에서 한자 儕(제) 역시 ‘무리(類, 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皆운 開口2等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ㄱ’모음으로 발음되지만 儕는 ‘ㄱ’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廣韻》과 《集韻》에서 儕의 다른 어음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聲符 ‘齊’에서 어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聲符 ‘齊’는 《廣韻》 齊운 開口4等 從母인 徂奚切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제’로 발음되고 있어, 儕의 ‘제’음이나 유사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7) 《廣韻》 佳운 又賚

佳운 平聲 開口2等 初母인 楚佳切 又賚 두 글자는 현대 한국에서 ‘차’로 발음되고 각각 ‘깍지 끼다(手指相錯)’와 ‘말린 고기(賚賚)’의 의미를 나타낸다. 佳韻 開口2等 初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ㄱ’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ㄷ’모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廣韻》에는 又賚 두 글자에 대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麻운 平聲 開口2等 初母인 初牙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麻운 初牙切 어음이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 8) 《廣韻》 佳운 說

佳운 平聲 開口2等 泥母인 妳佳切 說는 현대 한국에서 ‘나’로 발음되고 ‘말로 남의 마음을 떠보다’와 ‘말이 바르지 않다(言不正)’의 의미를 나타낸다. 佳韻 開口2等 泥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ㄴ’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ㄷ’모음으로 반영되었다. 《廣韻》의 佳운 妳佳切은 ‘말이 바르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集韻》에는 ‘말로 남의 마음을 떠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麻운 平聲 開口2等 娘母인 女加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麻운 女加切 어음의 반영음인 ‘나’로 표현되고 있다.

## 9) 《廣韻》 佳운 杈

佳운 去聲 開口2等 初母인 楚懈切 杈는 현대 한국에서 ‘차’로 발음되고 ‘경지를 평평하게 하는 농기구(杈把)’의 의미이다. 佳韻 開口2等 初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ㄴ’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ㄷ’모음으로 반영되었다. 《廣韻》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麻운 平聲 開口2等 初母인 初牙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麻운 初牙切의 반영 어음이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 10) 《廣韻》 佳운 派

《廣韻》 佳운 去聲 開口2等 滂母인 匹卦切 派는 현대 한국에서 ‘파’로 발음되고 ‘갈라지다(分流也)’의 의미를 나타낸다. 佳韻 開口2等 滂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ㄴ’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ㄷ’모음으로 반영되었다. 청나라 吳志伊이 지은 《續字彙補》에 普駕切의 ‘p’a’음이 수록되어 있고, 현대 溫州방언에서 이 글자를 ‘p’a’로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에 ‘p’a’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2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五),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年 10月, 8137쪽.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앞의 책, 144쪽.

는 ‘p’a’의 반영음인 ‘파’가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11) 《廣韻》 佳운 汎

佳운 去聲 開口2等 疏母인 所賣切 汎은 현대 한국에서 ‘신’이 慣用音으로 발음되고 ‘뿌리다(灑)’의 의미를 나타낸다. 佳韻 開口2等 疏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ㅁ’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ㄴ’의 중성과 종성으로 반영되었다. 《廣韻》에는 所賣切 汎 아래에 “본디 또한 信의 음으로 읽는다(本又音信)”라고 주석하였고<sup>26)</sup>, 信이 대표되는 眞운 去聲 開口3等 心母인 息晉切 아래에 汎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眞운 去聲 息晉切의 반영음인 ‘신’음이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12) 《廣韻》 佳운 韃

佳운 去聲 開口2等 疏母인 所蟹切 韃는 현대 한국에서 ‘사’로 발음되고, ‘(가족)신(履, 韃)’의 의미를 나타낸다. 佳韻 開口2等 疏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ㅁ’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ㅏ’의 모음으로 반영되었다. 《廣韻》에서는 韃에 대해서 所蟹切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支운 上聲 開口3等 疏母인 所綺切과 去聲 開口3等 疏母인 所寄切의 두 음이 수록되어 있다. 支운 開口3等 疏母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시’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齒音 일부 글자가 ‘ㅏ’모음으로 반영되고 있어<sup>27)</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韃는 支운의 어음을 선택하여 발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聲符인 徙도 支운 上聲 開口3等 心母인 斯氏切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사’음으로 반영되고 있어 어음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26) 宋) 陳彭年 等著, 《廣韻》, 臺北市,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01년, 384쪽.  
 27) 줄고, <한어 어음변천과 현대 한국 漢字音(韻母) 반영—현대 중국 普通話 [-i]·[-ɨ]·[-ɯ]·[-ə]음을 대상으로—>, 《中國語文學》 第66輯, 2014年 8月, 256-257쪽.

## 13) 《廣韻》 佳운 鞋

《廣韻》 佳운 去聲 合口2等 匣母인 胡卦切 鞋는 현대 한국에서 ‘규’로 발음된다. 鞋에 대해서 《廣韻》에서는 또한 齊운 平聲 合口4等 匣母 戶圭切의 음을 수록하고 있는데, 두 어음 모두 ‘선명한 황색(鮮明黃)’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에서 자음 ‘ㄱ’으로 반영된 것은 見溪群 및 일부 匣母 洪音 글자이다.<sup>28)</sup> 佳운 合口2等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가’나 ‘개’로 발음되기 때문에 鞋의 ‘규’ 발음은 예외현상이다. 《廣韻》과 《集韻》에서 鞋의 다른 발음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聲符 圭에서 어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聲符 ‘圭’는 《廣韻》 齊운 平聲 合口4等 見母인 古攜切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규’로 발음되고 있어, 鞋의 ‘규’음이나 유사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 14) 《廣韻》 夫운 穉

夫운 合口2等 溪母인 苦夫切 穉는 현대 한국에서 ‘괴’로 발음되고 ‘왕겨(麤糠)’의 의미를 나타낸다. 夫운 合口2等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개’모음으로 반영되지만, 穉는 ‘괴’모음으로 반영되었다. 穉에 대해서 《廣韻》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泰운 合口1等 溪母인 苦會切의 어음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泰운 苦會切의 반영음이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 15) 《廣韻》 夫운 攄

夫운 合口2等 影母인 烏夫切 攄는 현대 한국에서 ‘회’로 발음되고, ‘미워하다(惡也)’의 의미를 나타낸다. 夫운 合口2等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개’모음으로 반영되지만, 이 글자는 ‘괴’의 모음으로 반영되었다. 攄에 대해서 《廣韻》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泰운 合口1等 影母인 烏外

28) 줄고,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탐색-한어 어음 변천사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58輯, 2011年 11月, 334-335, 339쪽.

切 어음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泰운 烏外切의 반영음이 선택되어 발음되고 있다.

16) 《廣韻》 夫운 嘸

夫운 ㅅㅁ2等 初母 楚快切 嘸는 현대 한국에서 ‘최’로 발음되고, ‘한 입에 먹어 버리다(一舉盡嚙)’의 의미를 나타낸다. 夫운 ㅅㅁ2等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내’모음으로 발음되지만, 嘸는 ‘니’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廣韻》과 《集韻》에서 嘸의 다른 어음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聲符 最에서 어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最是 《廣韻》 泰운 ㅅㅁ1等 精母인 祖外切로 현대 한국에서 ‘최’로 발음되고 있어 嘸의 ‘최’음이나 유사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3. 한국 고유 어음변천

한국인의 발음 용이성 및 언어 환경에 따른 고유 어음변천에 의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이 결정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i’모음의 ‘·h’모음으로의 변환

조선시대 한자음을 표기한 《東國正韻》(1447)·《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 등의 책에서는 ㅅㅁ 開口 1等の 疑母와 泥母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자가 ‘·i’모음으로 반영되었고, ㅅㅁ 開口 2等の 대부분 글자와 灰운 ㅅㅁ 1等の 唇音 위주의 글자가 ‘·i’모음으로 반영되고 있다.<sup>29)</sup> 조선시대에 ‘·i’모음과 ‘·h’모음으로 발음되었던 開口洪音인 ㅅㅁ과 ㅅㅁ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h’모음으로 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i’모음으로 발음되었던 灰운 ㅅㅁ 1等の 唇音 글자는 다른 ㅅㅁ 글자가 현대 한국에서 조선시대 어음인 ‘·i’음으로 발음되

29) 楊人從, 앞의 논문, 306-310쪽 참고.

는 경향과는 다르게 開口의 ‘ㅈ’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조선시대에서 현대 한자음까지의 어음변화에 ‘ㅣ>ㅈ’과정이 나타남은 매우 명확하다.

조선시대 한자음을 표기한 《東國正韻》(1447)·《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 등의 책에서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ㅈ’모음으로 발음되는 止攝 開口3等 글자가 ‘ㅣ’모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즉, 止攝 開口3等的 精系 글자와 일부 照系 글자들이 ‘ㅣ’모음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역시 ‘ㅈ’모음으로 발음되는 果攝 開口1等과 假攝의 開口2等 글자는 ‘ㅈ’모음으로 표기되고 있어<sup>30)</sup> 止攝 글자와 구분되고 있다. 발음위치와 방법에 있어서 ‘ㅣ’모음의 발음이 ‘ㅈ’와 유사한 開口音 音值를 표현했음은 명확하다. ‘ㅣ’음의 音值에 대해서는 현대까지 정론은 없다. 다만 服部四郎은 ‘ㅣ’의 중기 한국어의 음가를 ‘ㅈ’ 또는 ‘ㅉ’로 추정하였고, 이토 지유키는 ‘ㅈ’를 ‘ㅈ’ 또는 ‘ㅉ’와 같은 後元音 ‘a’로 표기하여<sup>31)</sup> ‘ㅣ’와 ‘ㅈ’ 두 모음의 유사성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ㅣ’음은 현대 한국 발음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哈운 開口1等 글자와 咍운 開口2等 글자는 모두 ‘ㅈ’음으로 합류되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일부 글자는 이미 ‘ㅈ’모음으로 표기되던 것도 있었다. 즉, 哈운 開口1等 該核核 등 글자는 《東國正韻》(1447)·《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에서는 ‘ㅈ’모음으로 표기하였지만, 《奎章全韻》(1751)에서는 ‘ㅣ’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다.<sup>32)</sup> ‘ㅣ’와 ‘ㅈ’ 발음이 유사하였고, 한국에서 ‘ㅣ’모음이 사라짐에 따라 유사음인 ‘ㅈ’모음으로 합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泰운 ㅈㅈ1等 舌頭音 端透定 성모 글자의 開口化

泰운 ㅈㅈ1等 글자는 중국 한어에서 宋代에 ‘-uai’음으로 변한다. 그러

30) 같은 논문, 285-296쪽, 354-359쪽 참고.

31) 이토 지유키 저, 이진호 역, 앞의 책, 250쪽 참고.

32) 楊人從, 앞의 논문, 306쪽 참고.

나 元代부터 喉舌齒음이 분화되어 ‘-uəi’운모로 변하고 현대 보통화에서도 ‘-uəi’운모로 발음된다. 泰운 合口1等の 牙音 見溪疑 세 聲母 글자만이 현대 보통화에서 ‘-uai’운모로 발음된다. 泰운 合口1等 글자의 한국음 반영 내용에서 일부 글자들이 開口化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泰운 合口1等 글자는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니’모음으로 반영되었으나 舌頭音 端透定 성모의 발음은 開口化 되어 ‘히’모음으로 발음된다. 조선시대 《三韻聲彙》(1751)과 《三韻聲彙》(1751)에서도 泰운 合口1等 端透定 성모 글자가 ‘이’모음과 ‘히’ 모음으로 반영되고 있다.<sup>33)</sup> 泰운 合口1等 舌頭音 端透定の 開口化가 조선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舌頭音 글자는 한국에서 주로 ‘치’·‘티’자음으로 반영되고, 泰운 合口1等 글자는 현대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니’모음으로 발음된다. 중국 한어에서 泰운 合口1等 舌頭音과 같은 어음변천을 거친 灰韻 合口1等の 端透定 성모 글자 글자인 堆摧頽腿退는 한국에서 ‘퇴’로 발음되고 있다. 다만 灰韻 去聲 合口1等 端母인 對 등의 일부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開口化 되어 ‘대’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에서 ‘퇴’음이 慣用音으로 발음되는 한자는 보이지 않는다. 《東國正韻》(1447)에서는 泰운 合口1等 端母 禡와 灰운 合口1等 去聲 端母 ‘對’의 음을 ‘퇴’로 표기하고 있으나<sup>34)</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대’로 발음된다. 한국 한자음에서 ‘퇴>대’의 開口化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灰운 平聲 端母인 堆鎚槌敦 등의 글자는 《東國正韻》(1447)에서는 ‘퇴’음으로 표기하였으나<sup>35)</sup>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퇴’로 발음되어 ‘퇴>퇴’로 有氣音化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端透定 성모 글자와 ‘니’ 모음 결합에 있어 한국인 발음의 용이성에 따라 開口化되거나 有氣音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예가 중국방언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溫州 방언에서 蟹攝

33) 같은 논문, 307쪽 참고.

34) 같은 논문, 307, 309쪽 참고.

35) 같은 논문, 308쪽 참고.

합口1等 端透定 성모인 對隊兌推頰腿退蛻 등의 글자가 開口化되어 ‘-ai’ 운모로 발음되고 있어<sup>36)</sup>, 발화자의 습관이나 발음 용이성에 따라 발음에서 開合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3) 開口字의 合口化

중국 한어의 변천과정에서 古音의 開合이 교체되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蟹攝 글자의 한국 현대 한자음에서도 開合의 교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蟹攝의 開口 글자가 合口化되어 일반적인 한자음 반영규칙과 다르게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廣韻》 佳운 上蟹 矮裔

佳운 開口2等 影母 글자는 현대 보통화에서 開口音 ‘-ai’운모로 발음된다. 佳운 上蟹 開口2等 影母인 烏蟹切 矮裔도 중국 보통화에서 ‘-ai’운모로 발음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合口 반영음 ‘왜’로 반영되고 있다.

#### (2) 《廣韻》 佳韻 平聲 娃洼

佳운 開口2等 影母 글자는 현대 보통화에서 일반적으로 ‘-ai’운모로 발음된다. 그러나 佳운 平聲 開口2等 影母인 於佳切 娃洼는 현대 보통화에서 合口인 ‘-ua’운모로 발음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合口化된 반영음 ‘와’로 발음되고 있다.

#### (3) 《廣韻》 佳운 去聲 曬

佳운 去聲 開口2等 疏母인 所賣切 曬는 중국 보통화에서 開口인 ‘-ai’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合口 반영음 ‘쇄’로 반영되고 있다.

36)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편, 앞의 책, 162-163쪽.

(4) 《廣韻》 皆운 去聲 曷

皆운 開口2等 曉母 글자는 중국 보통화에서 ‘-ie’운모로 발음된다. 皆운 去聲 開口2等 曉母인 許介切 曷도 중국 보통화에서 ‘-ie’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습口 반영음 ‘왜’로 반영되고 있다.

### III. 결 론

한국어로 同化된 漢字는 한국인의 발음환경과 시대적 언어 환경과 필요에 따라 수많은 선택 과정을 거치며 현대 한국 한자음을 형성하였다. 음성학적인 각도에서 현대 한국 한자음의 형성배경을 고찰하면 중국 한어 어음변천의 영향, 한국 고유 언어체계의 영향 및 多音字의 수용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인의 한자음 선택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蟹攝 1等·2等 글자의 모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현대 한국 한자음 모음의 형성배경을 분석하였고, 크게 ‘중국 漢語 어음변천’과 ‘중국 多音字 어음’ 및 ‘한국 고유 어음변천’의 세 가지 형성배경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어음 변천

중국 어음변천의 영향을 받은 현대 한국 한자음의 형성배경은 다음 6가지로 분석하였다.

- 1) 《廣韻》 哈·佳·皆·泰·夬운 開口1·2等の 합류음 ‘내’
- 2) 《廣韻》 佳·泰 開口字의 明清 分化音 ‘내’
- 3) 《廣韻》 佳·皆·泰·夬운 습口 1·2等の 합류음 ‘내’
- 4) 《廣韻》 佳운 습口字 元代 分化音 ‘내’
- 5) 《廣韻》 皆·泰 두 운 습口字 반영음 ‘내’
- 6) 《廣韻》 佳韻 開口二等 見母 佳街의 ‘내’

## 2. 多音字의 어음

한국에서 多音字를 수용할 때 多音 중 일부 어음을 선택하여 수용하고 있다. 多音字는 중국에서 몇 가지 독음으로 각각 표현되던 의미가 현대 한국에서 하나의 독음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같은 의미가 몇 가지 발음으로 존재했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발음이 선택된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한국의 多音字 어음 수용방법으로 분석한 예는 ‘哈운 憇의 “ㅣ”모음 반영’·‘哈운 摠顯의 “ㅣ”모음 반영’·‘皆운 麤의 “ㄱ”모음 반영’·‘皆운 簣의 “ㄱ”모음 반영’·‘皆운 憇의 “ㅣ”모음 반영’·‘皆운 儕의 “ㄱ”모음 반영’·‘佳운 又賡의 “ㅏ”모음 반영’·‘佳운 說의 “ㅏ”모음 반영’·‘佳운 杈의 “ㅏ”모음 반영’·‘佳운 派의 “ㅏ”모음 반영’·‘佳운 汎의 “ㄱ” 중성과 중성 반영’·‘佳운 鞭의 “ㅏ”모음 반영’·‘佳운 韃의 “ㅓ”모음 반영’·‘夫운 檣의 “ㅓ”모음 반영’·‘夫운 檣의 “ㅓ”모음 반영’·‘夫운 嘖의 “ㅓ”모음 반영’의 16가지이다.

## 3. 한국 고유 어음변천

한국인의 발음 용이성 및 언어 환경에 따른 고유 어음변천에 의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이 결정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ㅣ’모음의 ‘ㅓ’모음으로의 변환
- 2) 泰운 습口1等 舌頭音 端透定 성모 글자의 開口化
- 3) 開口字의 습口化

<References>

- Academy of Asian studies, *Han-Han-Dae-Sajeon*, DANKOOK University Press, 2002.7.
-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Han Yu Fang Yin Zi Hui*, 2<sup>nd</sup> Edition, Beijing: Language & Culture Press, 2003.6.
- Chen Xin-Xiong, *Xin Bian Zhong Yuan Yin Yun Gai Yao*, Taipei: Xuehai chubanshe, 2001.5.
- Chiyuki Ito, *Sino-Korean Phonology*, Geulnurim publishing co., 2011.4.
- Ding Du, *Ji Yun*, Xue Hai books, 1986.11.
- Ding Feng, *Liu Han Dui Yin Yu Ming Dai Guan Hua Yin Yan Jiu*, China social sciences press, 1995.2.
- He Jiu Ying, *Zhong Guo Han Zi Wen Hua Da Guan*, PEKING University Press, 1995.
- Lee, Chun Young, "Analysis on Position of Present Korean-Chinese Words in Transition of the Sound of Chinese Word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8, (2011):329-360.
- Lin Yin, *Xin jiao Song ben Guang yun*, Taipei: Li Ming Cultural Enterprise Co., Ltd, 1999.11.
- Min Zhong books, *Han Han Da Zi Dian*, Min Zhong books, 1966.10.
- Wang Li, *Han Yu Shi Gao*, 1<sup>st</sup> Edition, Beijing: Zhonghua book co. ltd, 1980.6.
- Wang Li, *Han Yu Yu Yin Shi*,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1985.5.
- Yang Ren Cong, *Study on Comparing with Sound of Sino-Korean and Mandarin*, Konkuk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issertation, 1982.

## &lt;Abstract&gt;

Chinese characters assimilated into Koreans have been built on the pronunciation environment of the Korean to the needs of contemporary language preferences. They have been passed through hosts of selection process and then have been formed into the sounds of Modern Sino Korean characters. In this paper, we see the characters of XIE SHE YI DENG & ER DENG(蟹攝 1等·2等)'s vowels, and analyse the formation background of Vowels sounds in Modern SinoKorean character in phonetical points, and also examine the three reasons of the formation background as follows. Those are transformation of pronunciation in China, polyphone in Chinese, and characteristic transformation of pronunciation in Korea. First we analyse six different types in the reason of pronunciation transformation in China. First, Characters of HA·JIA·JIE·TAI·GUAI(哈·佳·皆·泰·夬韻) in KAI KOU YI DENG & ER DENG(開口1·2等)'s combined pronunciation “히”; Second, Characters of JIA·TAI(佳·泰) in KAIKOU(開口)'s divided pronunciation ‘ㅋ’ in MING and Qing dynasty. Third, Characters of JIA·JIE·TAI·GUAI(佳·皆·泰·夬韻) in HE KOU YI DENG & ER DENG(合口 1·2等)'s combined pronunciation “내”; Fourth, Characters of JIA(佳) in HE KOU(合口)'s ived pronunciation “나”; Fifth, Characters of JIE·TAI(皆·泰) in HE KOU(合口)'s reflected pronuncitaion “니”; Sixth, Characters JIA(佳) and JIE(街) of JIA(佳) in KAI KOU ER DENG(開口二等) with JIAN(見)'s pronunciation “ㄱ”. In the acceptance process of polyphone in Chinese, it had been selected only a few of pronunciations in Korea.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characteristics pronunciation in Korea, we especially analyse the three different types, considering easy of pronunciation of Korean

people and language environment of Modern SinoKorean characters situation. First, vowel “·|” changed into “ㅁ”; Second, KAI KOU HUA (開口化) in HE KOU YI DENG(合口1等) of TAI YUN(泰韻) with consonants DUAN·TOU·DING(端透定); Third, Characters in KAI KOU (開口) changed into HE KOU(合口).

Key Words : 현대 한국 한자음(sounds of Modern SinoKorean characters), 현대 한국 한자음 형성 배경(Formation background of Modern SinoKorean characters' sound), 한자음 모음 반영 (Vowels of SinoKorean characters' sound), 한중 언어 비교 (Linguistic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